

주님의 부활

²⁴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²⁵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²⁶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²⁷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²⁸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²⁹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5:24-29)

주님의 내면(*the Lord's internal*)은 여호와 자신이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잉태되듯 여호와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지만 나뉘어 또 다른 뭔가가 될 수는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신성(*the*

Divine)은 사람처럼 나뉘 수 없습니다. 신성은 하나라는 상태가 늘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But the Lord's internal was Jehovah himself, because he was conceived from Jehovah, who cannot be divided and become another's, as is the case with a son who is conceived from a human father; for the Divine is not divisible, like the human, but is and remains one and the same.*

이 내면에 주님은 인성(*the human essence*)을 결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내면은 여호와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처럼 생명을 담는 무슨 그릇 용도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셨습니다. *To this internal the Lord united the human essence; and because the Lord's internal was Jehovah, it was not a form recipient of life, like the internal of man, but it was life itself.*

이렇게 하여 주님의 인성 역시 생명이 되셨는데, 이런 이유로 주님은 종종 나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His human essence also in like manner was made life by the union, on which account the Lord so often said that he is life. (AC.1*

‘주님의 부활’

999:5)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 그 의미는 영계, 자연계를 총망라한 전 우주적인 사건이어서 절대로 몇 마디 말로 풀 수 없는 근본적인 주제이지만,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요한 복음 주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빛을 구하며 살짝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부활’에 대한 이해가 많은 부분 교정되고 바로잡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 삼위일체는 ‘세 분 하나님’이 아닌, ‘한 분 주님’에 대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은 잉태 후 해산, 혹은 부화, 배가 시, 전혀 다른 둘이 되지만, 주님은 그렇게 나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며, 영원히 동일한,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

은,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불드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일개 피조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눈 번쩍 뜨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한 분 주님’이신 분입니다. 아멘!

둘째, ‘신성’(神性, *The Divine*)과 ‘인성’(人性, *human*)은 마치 영과 육 같아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연계가 영계를 볼 수 없듯 인간은 신(神)을 디렉트로 접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본성의 차이 때문도 있지만, 더 심각한 이유는, 피조물이 조물주를 직접 접했다가는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주님은 친히 강림하실 때마다 자신을 뻑뻑한 구름으로 가려 사람들을 보호하시곤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신성 그 자체가 아닌, 인성을 옷 입으시고 이 피조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인성은 부활 전 인성과 부활 후 인성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했고,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려 오

셨으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마리아의 악을 유전하셔야만 했고, 그래서 주님의 일생은 이 유전 악을 벗어버리는 일생이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평생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 악에서 물러나는 것을 배우듯 말입니다. 주님은 이 영역에서도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만일 주님에게 유전악이 없으셨다면,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은 거룩하시고, 신성하셨다면 악이 감히 주님을 시험하지도, 공격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 듯, 주님은 출생 때부터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즐기치게 악으로부터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에게도 우리처럼 유전악이 있으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성을 유지하시되 그러나 이번에는 유전악을 벗으신, 대신 신성을 옷 입으신, 신적 인성(*The Divine Human*)이 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야 지옥에 내려가 그 당시 피조세계의 균형을 위협하던 악을 수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오직 유일한 방법, 방안이었던 이유는, 만일 주님이 신성 그 자체로 지옥을 방문하시면 지옥 그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인데,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은 심지어 지옥에

내려간 악한 영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결단코 그들이 소멸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만일 주님이 유전악을 해결하지 못한,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는 지옥을 방문하실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영광을 회복, 신적 인성이 되셔서 지옥을 방문하셨고, 지옥을 교통 정리하셔서 이 피조세계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넷째, 영계에서는 영의 몸, 영체를 입습니다. 영계에서까지 굳이 자연계의 몸, 육의 몸, 육체를 입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는 영이 자연계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옷입니다. 우리가 달 착륙을 비롯, 우주 공간에서 활동하려면 우주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러면 모든 게 불편하듯, 그렇게 우리 영이 우리 몸을 입고 지내는 건 매사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그걸 잘 모르는 건 그냥 태생적으로 익숙해져서일 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후, 이 육체라는 옷을 벗게 되면 그때는 모든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육체의 오감은 사실은 영의 오감이기 때문에, 사후에는 모든 감각이 몇 배나 더 예리해지며, 탁월해진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 영체의

요5:24-29, AC.1999:5

‘주님의 부활’

삶을 살던 자가 뭐하러 다시 예전 그 늙고 병든 몸을 찾을까요?

우리가 알던 몸의 부활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몸의 부활은 오직 한 분 주님한테만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사후, 영계에서 눈을 뜨는 것, 소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임종 후, 영계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 들어갔다가 못 깨어나면 큰일 나듯 말입니다. 우리가 영계에서 깨어나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능력이요, 사랑입니다. 그걸 절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네, 살필 수 있는 게 더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먼저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며, 모든 진리, 진실이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라는 말씀은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은 모두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에서 **‘영생을 얻었고’**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심판에 이르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이 말씀은 천국에 가기 위한 두 가지 요건, 즉 그 첫 번째는 **‘내 말을 듣고’**, 두 번째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는 순종을,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은 진리이신 주님을 보내신, 진리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통해 한 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한 분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인

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직접 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오신 주님과 말씀은 서로를 표상합니다.

이렇게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라'는 것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믿으라는 것이며, 진리를 통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맹목적으로 당신을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각자의 이성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순종과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순종과 믿음을 강조하시는 까닭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며, 믿음이 없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²¹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²²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약2:21-22)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종과 믿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26과 27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²⁶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²⁷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첫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둘째,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그 생명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사랑 자체이신 주님을, 아들은 진리이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부활’

다르게는, 아버지는 신성 자체를, 아들은 신성에서 비롯된 인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성 자체이며, 사랑 자체인 주님이시라면 아들은 신성에서 비롯된 인성, 사랑에서 비롯된 진리이신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이 신성에서 비롯된 인성을 신적 인성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신적 인성은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간으로서의 성품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다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던 인성이,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입으셨던 그 인성은 완전한 인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성을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그 인성 안에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유전적인 성품이 그대로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로부터 받은 유전 악을 극복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유전 악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사실 입에 담기조차 불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리아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싸우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싸움의 과정은 마치 인간이 유전적인 악을 극복하고 거듭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입으신 인성이 처음부터 완전했다면 지옥이 감히 주님을 공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싸움은 불완전한 인성을 완전하고 거룩한 인성으로 바꾸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겐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의 시험은 그 싸움의 절정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싸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인성과 신성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신적 인성을 회복하신 것이고, 동시에 여호와와 자리로 다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다는 생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시험을 통해 신성과 인성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인성 또한 신성과 함께 생명 자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속 사람과 겉 사람이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와 선이 속 사람 안에만 있지 않고 겉 사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의 경우와 인간의 경우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거듭남(*regeneration*)이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완전한 그릇이 되는 것이라면, 주님의 영화(*Glorification*), 또는 부활은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 자체와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릇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 자체라고 불리는 것은 주님에게 있는 생명이 주님 자신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는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받아 인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주님의 생명을 받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신성 안에 있던 생명이 그렇게 인성 안에도 존재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신성 안에 있는 생명이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신성과 하나가 된 인성 가운데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셋째, 생명이란 무엇일까? 생명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냥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선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이 주님 아닌 그 어느 누구한테서도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생명이 영원 전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인성을 거쳐 나오는 생명’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의 신적 인성으로부터 나오는 생명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에 대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사30:2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은 주님께서 지옥의 도전을 뿌리치시고 부활하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는 것은

요5:24-29, AC.1999:5

‘주님의 부활’

주님의 신적 인성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와 선의 능력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능력이 더 커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진리와 선과 그 능력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신적 인성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완전하다고 할까요? 신적 인성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와 선이라야 인간에게 완전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성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진리와 선은 인간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을 무덤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라야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간은 무덤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와 선은 신적 인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신적 인성에서 나오는 진리와 선을 일곱 배나 밝은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의 신적 인성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법이 하늘과 땅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는 진리를 나타내고, 권한이 있다는 것은 신적 인성으로부터 나오는 진리가 능력이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고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사람을 심판하시어 지옥에 보내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진리, 또는 질서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누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의 법칙에 따라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영계와 지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신적 인성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영이 닫혀서 더 이상 주님을 향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

‘주님의 부활’

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인간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인성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와 선은 어떤 악한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참된 생명이며, 능력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곧 교회의 마지막 때이며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즉 교회 안에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는 때입니다. 주님은 왜 그때까지 기다리시며, 사람들은 왜 그 때가 되어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인간은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져야만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나를 부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개개인 안의 교회도 그렇게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날을 위해서 모든 고초를 겪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16:7)

아멘